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서현)

- 230098 김민주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많이들 정의한다. 맞다. 건축은 인간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책을 읽으며 생각지 못하게 건축이 음악, 미술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 들었다. 건축은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구조를 사는 방법을 통하여 보여 주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라고 책에서 언급한다. 이 내용을 본 후, 음악, 미술 또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 나타내는 점을 보며 건축과 꽤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건물에 쓰이는 재료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축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단순한 건물을 넘어 도시 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현대 건축을 다루고 있지만, 건축의 의미부터 시작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아 건축 세계를 담백히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었다. 건축을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내가 인문적 건축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단순히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특히 30년이나 된 책이라는 점이 많이 놀라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의 맺는말에 나온 “저 건물은 멋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 문구는 건축을 전공으로 하려는 나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자는 스스로 나만의 생각을 직접 구축하는 것을 원한 것 같다. 빛과 건축의 관계성에 관심이 있던 내가 이 책을 보며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그 경계의 위치를 잡아 나가는 것이 건축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 건축에 종사하게 된다면 실내에 들어오는 빛의 양까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걸어 다니며 보이는 건물에 대해 멋지다, 예쁘다 등의 꽤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외관을 중점으로만 평가하기도 했고, 그저 건축가의 감상 혹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동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어쩌면 오히려 건축가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건물을 해석하고 그로 인한 해석의 다양함이 감상의 창조성이라는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인상 깊었다. 이런 점에서 좋았다. 단지 곧이곧대로 건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나만의 건축적 철학을 마련하고 생각해낼 수 있어서. 또한 건축의 가치가 멋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어 나의 건축 세계를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